

“리더 역할·판단 중요… 미래 희망·비전 함께 노력하자”

권오갑 HD현대 회장

계열사 사장단 소집, 13명 참석
대내외 경영환경 대응 전략 논의

“지혜로운 위기극복 위해 힘 합치고
불황·위기 정확한 분석·대응을”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3일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대내외 경영환경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 중동전쟁,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는 권 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 13명이 참석했다. 사장단은 회의에서 각 사의 핵심 경영구상을 공유하고 연초에 세웠던 사업 목표를 분석한



HD현대 권오갑 회장.

뒤 하반기 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진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HD현대의 3대 핵심 축인 조선과 에너지, 건설기계 분야가 대내외적

악재로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조선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해운 운임 하락의 영향으로 발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주 실적도 급감한 상태다. HD현대의 알짜 계열사인 HD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정유·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실적이 줄어들면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580

억원 기록했지만 전년대비 비교하면 58.2% 급감했다.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은 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8%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건설기계 부분의 경우 최근 HD현대 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하며 위기 해소에 나섰다. 양사 합병과 관련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권 회장은 “지금은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앞으로 다칠 불황과 위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힘쓰되, 외부 변수에 흔들려 너무 조급해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리더들의 역할과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의 인적·물

적 자원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소신을 갖고 자신 있게 행동해달라”면서 “직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사장들이 직접 현장에 자주 나가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우리가 눈앞의 실적에만 편승해 위기의 심각성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통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HD현대는 각사별 경영현황설명회를 열어 회사가 직면한 위험과 그 영향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공간 등 개선… 7년전 가격 그대로”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국내 소비자 선호 ‘통풍시트’ 첫 도입
STLA 미디엄 기반, 차체 더욱 넓혀

“이 가격을 만들기위해 본사와 수차례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고 때로는 간절함을 담은 협박까지도 마다하지 않았 습니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가 3일 성수동에 위치한 문화예술공연장 캔디 성수에서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조는 침체된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준중형 SUV로 판매 반등은 물론 수입차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방 대표는 “성능은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라며 “2018년 2세대 푸조 3008 GT에 비해 디자인과 공간, 파워트레인이 개선됐지만 국내 출시 가격 그대로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3008은 2년 전 유럽에 첫 출시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시기적으로 낮은 감은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푸조 3008 스마트하이브리드 외관(위)과 실내 모습. /양성운 기자

선호하는 통풍시트를 최초로 적용했고 장거리 주행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마사지 시트 기능 등을 추가했다.

3008에는 하이브리드 및 순수전기차를 아우르는 ‘STLA 미디엄’을 기반으로 설계돼 전장 90mm, 전고 20mm, 휠베

이스 55mm 등 차체가 더욱 넓어져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트렁크는 기본 588L로 뒷좌석 폴딩 시 최대 1663L로 늘어난다.

또 48V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 도심에서 전체 주행 시간의 약 50%를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능하다. 전기모터 통합 설계로 시동·출발·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작동하며, 회생제동과 가속 보조 기능으로 높은 연료 효율과 정숙성을 제공한다. 엔진과 전기모터 합산 최고 145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14.6km/L를 달성했다.

방실 대표는 “올 상반기 판매할 수 있는 모델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했다”며 “3008 스마트하이브리드가 푸조의 구원투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 푸조의 판매량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조는 이번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출시에 앞서 4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5월 ‘408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바 있다.

푸조 3008 스마트하이브리드 가격은 알튀르 4490만원, GT 49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LG화학, AI 활용 경력개발·성장기회 발굴

LG화학, 제3회 커리어 워크

신학철·권봉석 부회장 연사 참석
성공경험·경력개발 인사이트 공유

LG화학이 임직원의 경력개발과 성장 기회 발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LG화학은 오는 4일까지 ‘제3회 커리어 워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임직원이 스스로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성장 가능성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커리어 워크는 ‘리더가 리더를 육성한다’는 LG화학의 인재육성원칙 아래 사내의 경영진과 리더들을 초청해 임직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강연과 멘토링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LG화학 고유의 육성 프로그램이다.

로그그램이다.

올해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권봉석 LG 부회장 등 자사 및 그룹사의 리더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고객경험부터 영업, 마케팅, 전략, 생산, R&D, A X(인공지능 전환)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체득한 성공 경험과 경력개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커리어 워크에는 AX시대에 발맞춰 AI를 활용한 커리어 설계 및 육성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LG화학 임직원은 직무역량 진단을 통해 직무별 핵심 역량과 요구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AI를 활용해 경력개발 경로부터 미래 비즈니스 환경에 필요한 역량,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자원과 실천 계획 등을 탐색하고 수립한다.

/차현정 기자

가전제품 AS 품질평가

삼성전자서비스 국가서비스대상 ‘1위’

삼성전자서비스가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 부문에서 2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며 ‘AS도 역시 삼성’이라는 평가를 입증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가전제품 AS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한국표준협회의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는 컴퓨터 및 휴대전화 AS 부문 1위를 각각 24년, 22년 연속으로 이어갔다.

서비스품질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부문에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유일한 사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품질 서비스, 고객 관점의 응대, 편리한 이용 경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전 조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혜민 기자 hyem@

LG전자 KS-SQI 2년연속 1위

LG전자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X) 기술을 앞세워 가전제품 A/S 분야 서비스 품질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가전제품 A/S 부문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수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해 평가하는 대표 지표다.

LG전자는 정확성, 전문성, 적극성, 사회적 가치 등 전 항목에서 업계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AI와 DX 기술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응대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AI 기반 솔루션은 LG전자 서비스 전 과정에 적용됐다. ‘AI 수리 어시스턴트’는 엔지니어와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리 결과도 요약해 안내해준다. /이혜민 기자

SK네트웍스, 상반기 주요성과 ‘나무엑스’

사내 구성원 의견수렴 성과 정리

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자회사를 통해 공개한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를 꼽았다.

SK네트웍스는 사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SK네트웍스 및 자회사들의 상반기 의미있는 성과들을 정리해 사내방송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무엑스는 SK네트웍스의 전략 방향성 아래 SK매직의 자원을 활용해 탄생한 브랜드로 SK매직의 기존 제품군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런칭 쇼케이스 자리에서 고정형 공기청정기 6대를 대체할 수 있는 ‘에어 솔루션’과 비접촉 방식으로 인간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바이탈 사인 체크’ 기능을 선보였으며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빠른 반

응 속도와 높은 보안성을 갖춰 참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SK스피드메이트의 정비 브랜드인 스피드메이트가 15년만에 브랜드 로고를 새롭게 바꾼 점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혔다. 강렬한 레드 컬러를 바탕으로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볼트와 너트를 형상화해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인 ‘s’, ‘e’를 디자인함으로써 ‘내차 정비의 처음과 끝’이란 슬로건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밖에도 SK네트웍스 및 자회사들은 사업별로 수익 증대와 신제품 출시 등을 위해 상반기 구슬땀을 흘렸다. /차현정 기자 hyeon@